

겨울잠 깬 호랑이

KIA 스프링캠프 일정 확정

내달 1일~3월 8일

오키나와 킨구장서

‘캠퍼인’ KIA 타이거즈의 2018 스프링캠프 일정이 확정됐다. 일본 오키나와가 2연패를 위한 담금질 무대다.

KIA가 “오는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선수단은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에 이어 한국 및 일본 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진행된다.

선수단은 캠프 초반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에 주력한다. 2월 중순부터는 12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KIA는 내달 14일 킨구장에서 열리는 라쿠텐 이글스전을 시작으로 ▲주니치 드래곤즈(2월 15일·차탄구장)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즈(2월 17일·기노와 구장) ▲요미우리 자이언츠(2월 18일·셀룰러 구장) ▲니혼햄 파이터스(2월 19일·킨구장) ▲한신 타이거즈(2월 21일·기노자 구장) ▲히로시마 도요카프(2월 22일·오키나와시 구장)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즈(2월 23일·기노와 구장) 등 일본 프로팀과 8차례 연습

경기를 치른다.

또 3월 1일 한화 이글스(킨 구장)를 시작으로 ▲SK 와이번스(3월 2일·킨구장) ▲LG 트윈스(3월 3일·킨구장) ▲삼성 라이온즈(3월 5일·아카마 구장) 등 국내 팀과도 4차례 연습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단 명단은 추후 발표된다. 스프링 캠프 참가 선수 확정에 앞서 18일 체력 테스트가 진행된다. 캠프 명단 작성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전망이다.

KIA는 김기태 감독이 고향팀 지휘봉을 처음 잡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2015년 투수 김진우가 체력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오키나와가 아닌 2군 캠프가 꾸려진 대만으로 이동해 시즌을 준비했다. 2016 시즌에는 전원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지난 겨울 한 차례 쉬어갔던 체력 테스트가 이번 겨울 부활했다. 체력테스트는 우승 후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선수들은 체력 테스트날 체지방율, 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를 한 뒤 광주월드컵경기장 트랙으로 이동해 4km 질주에 나선다. 선수들은 각각 투수와 야수조, 나이대(27세 이하, 28~33세, 34세 이상)에 따라 주어진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추신수

코리안 빅리저 ‘절치부심’

ML 류현진 2월 14일·추신수 2월 21일 스프링캠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은 여느 해처럼 정규리그를 겨냥해 본격적인 땀방울을 흘린다.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스포팅뉴스가 8일 소개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스프링캠프 개막 일정을 보면, ‘새신랑’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2월 14일 미국 애리조나 주 캐멀백 랜치에 있는 스프링캠프에서 다저스 투·포수들과 훈련을 시작한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는 같은 주 서프라이즈에서 2월 21일 투수·야수 첫 합동훈련에 참가한다.

왼쪽 팔꿈치와 어깨 수술 후 지난해 빅리구에 3시즌 만에 복귀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류현진은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로테이션 수성을 향한 생존 경쟁에 돌입한다.

지난 5일 배지현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와 백년가약을 맺은 류현진은

8일 신혼여행 출발을 알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류현진은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로 #잘다녀오겠습니다, #honeymoon을 덧붙였다.

지난 2013년 말 자유계약선수(FA)로 텍사스와 7년간 계약한 추신수도 조만간 가족과 함께 출국해 레인저스 이적 5년째를 대비할 참이다. 지난달 22일 귀국한 추신수는 연말연시를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작년 말 트레이드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미국 언론은 팀에서 추신수만큼 출루율 높은 타자가 없다며 그의 꾸준한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신수는 1월 중 미국 텍사스 주로 들어가 예년처럼 야수 합류일보다 훨씬 일찍 서프라이즈로 이동해 시즌을 맞이할 참이다.

/연합뉴스

김다원 KIA 복귀…김원섭 전력분석원으로

웨이버 공시로 팀을 떠나야 했던 외야수 김다원이 ‘호랑이 군단’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김다원이 KIA 타이거즈에서 2018시즌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합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새 시즌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김다원은 지난해 7월 웨이버 공시되면서 고향팀 유니폼을 벗었다. 팀 내 치열한 외야 경쟁이 전개되면서 김다원의 이름이 웨이버 공시 명단에 오른 것이다.

웨이버 공시 후 1주일 이내에 다른 구

단의 지명을 받으면 이적을 통해 그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김다원은 다른 팀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2017시즌을 그대로 마감했다.

야구의 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다음을 준비했던 김다원은 다시 KIA의 부름을 받았다. 여전한 외야 경쟁 속 육성 선수 신분이기기는 하지만 김다원은 익숙한 고향팀에서 2018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또 지난 시즌 은퇴를 선언하면서 유니폼을 벗은 외야수 김원섭은 올 시즌 KIA의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년만에 동계올림픽 복귀 北, 10명 안팎



IOC 와일드카드 종목 배분 관심

쇼트트랙·노르딕 스키 등

역대 올림픽 참가 이력 감안

자력 출전권 획득했던

렴대옥·김주식 구제 1순위



렴대옥(왼쪽)과 김주식 선수.



더스틴 존슨 PGA 시즌 첫 대회 우승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 2위에 8타 앞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사진)이 2018년 첫 대회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컵을 안았다. 존슨은 8일 미국 하와이 주 마우이 섬 카팔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52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630만 달러) 마지막 날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24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존슨은 2위 온 람스페인을 8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113만4000달러(12억 1000만원)를 거머쥐었다.

PGA 투어 통산 17번째 우승이자, 2013년에 이어 이 대회 두 번째 우승이다. 또 이번 우승으로 2008년부터 11년 연속 우승컵을 안은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PGA 투어 우승자 34명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존슨은 세계랭킹 1위의 위용을 뽐냈다.

첫날 공동 7위로 출발한 그는 둘째 날 3



이름을 올리며 톱 10 진입에 성공했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최종합계 12언더파 280타를 기록하며 9위에 자리했다.

디펜딩 챔피언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이날 6타를 줄이며 뒷심을 발휘했으나, 1~3라운드에서 저조해 공동 22위(4언더파 288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KLPGA 30개 대회 상금 207억

3월 9일 베트남서 시즌 시작…4월 5일부터 국내 대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 시즌이 30개 대회에 총상금 약 20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8일 KLPGA 투어가 발표한 2018시즌 일정에 따르면 총 대회수는 2017시즌과 같은 30개 대회로 유지되고, 총상금 규모 역시 207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역대 총상금 규모가 가장 컸던 시즌은 2016시즌으로 당시 총상금 규모는 212억원에 달했다.

새해 첫 대회는 3월 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이다.

2018시즌 개막전은 이미 지난해 12월 역시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이었으며 당시 최혜진이 우승한 바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새해 첫 대회는 4월 5일 제주도에서 막을 올리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이다.

5대 메이저 대회는 4월 26일 개막하는 제40회 크리스토프앤씨 KLPGA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6월 기아자동차 제32회 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2010년 밴쿠버 대회까지 총 8차례만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다. 출전할 선수가 없어 2014 소치 대회까지 6번이나 대회를 건너뛰었다. 이번에 평창에 선수단을 파견하면 8년 만에 동계올림픽에 복귀한다.

북한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명씩 선수 2명을 보냈다.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선 피겨 4명, 쇼트트랙 2명 등 총 6명,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선 빙속 2명, 쇼트트랙 6명 등 총 8명을 파견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선 알파인 스키 2명, 크로스컨트리 스키 4명, 피겨 6명, 쇼트트랙 3명, 빙속 5명 등 역대 가장 많은 20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했다.

북한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은메달, 쇼트트랙에 동메달 등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합하면 20년 사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는 대회별로 2~8명 수준이다. 출전 선수의 60%를 선수단 임원(코치 포함)으로 배정한다는 IOC 규정을 고려해도 역대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은 북한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았다.

IOC가 이런 사례를 준용한다면, 피겨 럼대옥·김주식 조외에도 쇼트트랙과 노르딕 스키 등에서 와일드카드 출전자가 나오더라도 임원을 포함하면 평창에 올 북한 선수단은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